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 한국오리협회장 김 만 섭

경기의 조로(早老)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짝 살아나는 듯하더니 다시 기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로 돌아서고 민간소비 회복세도 약화되면서 성장률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 본다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

이 시급한 시점이다. 고유가와 원화절상이라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여건이 아직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고도성장을 통한 또 한번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昊天不負苦心人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있다가 사과 하나에 얻어맞고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고민하며, 끊임없이 물체의 인력에 대해 연구하고 사색을 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안테나를 세워 놓아야 전파가 잡히는 것이다.

“하늘은 불쌍한 자를 돕는다”가 아니다. “하늘은 배고프고 아픈 자를 돕는다”가 아니다. 불쌍하고 배고픈 자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도우면 되는 것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했다. 먼저는 인간이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 먼저는 스스로 돕고 노력해야 한다.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Bultmann, Rudolf)은 “하나님의 할 일과 인간의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야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려 해야 한다. 그런 노력과 몸부림 속에 영감도 솟고 아이디어도 생겨나고, 행운과 기회도 따라오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속담이라기보다 물리 법칙에 가깝지 않을까?

지난 11일 오후 5시,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오리자조금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오리자조금 사업은 수많은 시도에도 번번이 무산돼 지난

해는 정부에서 책정된 2억 5천만원의 예산조차 쓰지 못한 채 올해 5천만원으로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본회 회원을 비롯한 농림부, 관련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영입하고 사업계획서가 농림부 승인까지 받은 만큼, 앞으로 자조금 사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사업 시행에 앞서 우리가 왜 자조금이 필요한지, 여타의 축종산업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 ● 자조금의 필요성

농·축산물은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하고 생산자의 소득도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리와 같은 가금산업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져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산업의 주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사회에서 우리의 축산업은 금세 도태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HPAI, 폭우, 폭설 등과 같은 질병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되고 만다. 또한 산업에 필요한 정책 입안시, 정부가 아닌 산업관련자 주도의 정책을 피력해 얻어지는 혜택은 함께 누리고, 내·외적 위험요소는 공동부담해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이 바로 자조금이다.

#### ● 임의자조금의 선행 사례

현재 농축산업 중 먼저 자조금사업을 시행해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 한우, 낙농, 양돈 분야이다. 각각 초기 사업 계획이나 방향에 약



■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우유소비홍보 광고 '신준항전'



■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돼지고기 소비홍보 광고 '우리돼지 먹는 날'

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자조금에 대한 산업 전반의 열의와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격적 소비·홍보 전략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우와 양돈분야는 지난해 평균 자조금 거출율이 각각 89%, 93%를 나타내는 등 해당 산업종사자의 지지가 커 사업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낙농분야의 경우 신세대들의 취향에 맞게 톡톡 튀면서도 쉽게 각인될 수 있는 광고를 TV 주요 시청 시간대에 배치함으로써 우유 소비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들 산업은 앞으로 한미 FTA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피해가능성을 예측, 시장 개방시에도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조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 ● ● 맺음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자조금이 없어서는 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특히나 오리업계는 연말마다 걱정하는 HPAI와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에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오리산업은 이제 자조금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산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자조금사업은 누구 하나만이 아닌 업계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만큼 회원 및 비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